

중기 30% 늘었는데… 한은 지원한도 12년째 제자리

한은 지역본부별 배정 한도 (단위: 억원)			
지역본부	2014년 9월	2026년 10월	비율
부산	7,579	7,579	12.8%
대구경북	9,096	9,096	15.4%
광주전남	922	922	1.6%
전북	2,318	2,318	3.9%
대전세종충남	4,865	4,865	8.2%
충북	1,737	1,737	2.9%
강원	874	874	1.5%
인천	6,644	6,644	11.3%
제주	992	992	1.7%
경기	10,013	10,013	17.0%
경남	5,894	5,894	10.0%
강릉	973	973	1.6%
울산	1,649	1,649	2.8%
포항	1,165	1,165	2.0%
합계	59,000	59,000	100.0%

광주전남·목포본부 5201억원 배정 8.9% 그쳐

“지역별 경제여건·자금 수요 반영한 기준 필요”

지역별 중소기업 수와 경제 규모가 달라졌지만 한국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한도는 12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 지역 역시 중소기업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가 전체의 8.9%인 5000억 여원에 그쳐 지역 실정에 맞는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역본부별 배분 한도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지방중소기업지원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세부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체 지원한도는 5조 9000억원으로, 광주전남본부에 배정된 금액은 4279억원이다. 전체의 7.3% 수준으로, 2014년과 현재의 배정액이 같다. 또 목포본부는 922억원으로 1.6%에 그쳤다.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규정은 지역본부별 지원한도를 배정할 때 지역내총생산(GRDP), 중소기업 수, 자금 사정 등 지역별 경제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

지만 실제 한도 배분은 12년 동안 변하지 않아 지역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 지역의 중소기업 규모는 지난 몇 년간 확대됐다. 김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한국은행 지역본부 관할지역에 맞춰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본부 관할지역의 활동기업 수는 2016년 27만4847개에서 2023년 35만 7097개로 늘었다. 증가율은 29.9%다. 같은 기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 평균 증가율인 32.6%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활동기업 수 자체는 8만개 이상 증가했다. 기업 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폐업 등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기업도 늘어난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와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역 경제의 성장 속도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실질 GRDP 증가율은 광주가 17.8%, 전남이 8.5%로 집계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평균 증가율 18.4%와 비교하면 광주는 소폭 낮았고 전남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같은 기간 경기의 증가율은 30.2%, 세종은 32.4%에 달한 반면 울산은 2.5%, 경북은 3.4%에 그쳤다. 지역별 경제 규모와 기업 활동의 변화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지원한도는 고정돼 있었다. 중소기업 수와 지역 경제 규모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 실제 전국 평균인 27.3%보다 낮았다. 기업 활

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폐업 등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기업도 늘어난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와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역 경제의 성장 속도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실질 GRDP 증가율은 광주가 17.8%, 전남이 8.5%로 집계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평균 증가율 18.4%와 비교하면 광주는 소폭 낮았고 전남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같은 기간 경기의 증가율은 30.2%, 세종은 32.4%에 달한 반면 울산은 2.5%, 경북은 3.4%에 그쳤다. 지역별 경제 규모와 기업 활동의 변화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지원한도는 고정돼 있었다. 중소기업 수와 지역 경제 규모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 실제 전국 평균인 27.3%보다 낮았다. 기업 활

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 신규 여신 공급과 지역 내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역시 농어업과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큰 만큼, 지역별 건전성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고 선제적인 부실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송옥주 의원은 “비조항입 대출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상호금융이 지방 공공금고 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상호금융 건전성 ‘빨간불’…10곳 중 1곳 연체율 10% 넘어

조합·금고 339곳…반년 새 66.2%↑ 부실 심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인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체율이 10%를 넘는 조합과 금고가 반년 만에 60% 넘게 증가한 데다,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대거 매각했음에도 전체 업권의 연체율은 일제히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상호

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339곳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말 64곳에서 올해 상반기 말 120곳으로 56곳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협은 36곳에서 78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농협도 80곳에서 107곳으로 늘었으며 수협은 7곳에서 13곳, 산림조합은 17곳에서 21곳으로 각각 증가했다.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금고는 2022년 말 51곳에서 2023년 말 112곳, 2024년 말 320곳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말 204곳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다시 급증하면서 2022년 말과 비교하면 약 6.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체 연체율도 상승했다. 농협은 지난해 말 4.61%에서 올해 6월 말 5.2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신협은 4.83%에서

6.11%, 새마을금고는 5.08%에서 6.34%로 상승했다. 수협은 5.72%에서 6.82%, 산림조합은 5.81%에서 6.73%로 각각 올랐다. 특히 기업대출에서 부실 위험이 두드러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협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24%, 새마을금고는 10.17%로 각각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두 업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2.48%, 1.90%인 것과 비교하면 기업대출의 연체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이다. 지역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지역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호금융은 농어업인과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 신규 여신 공급과 지역 내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역시 농어업과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큰 만큼, 지역별 건전성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고 선제적인 부실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송옥주 의원은 “비조항입 대출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상호금융이 지방 공공금고 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광주은행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

정일선 광주은행장,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동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금융 취약계층 보호 뜻 모아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지목…BC카드 다음 주자로

광주은행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은 지난 7월 서민금융진흥원이 시작한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참여자가 ‘더 이상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람 살리는 금융이 지켜줍니다’라는 메시지를 알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사람 살리는 금융’의 가치 확산에 뜻을 모았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별시 광산구에 문을 연 ‘전남광주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에 참여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상담과 금융서비스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밀착형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는 카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온 BC카드 김영우 대표를 지목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원·달러 환율 1330원대…엔화 18년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속에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업체의 매도 물량 유입에 힘입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7원 내린

1335.1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4일(1333.7원·1331.3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앞서 환율은 지난 7월1일 중동 지역 불안과 달러 강세로 장중 1559.2원까지 치솟았고, 같은 달 7일에는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555.8원을 찍으면서 1600원 돌파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 8월 중순

올해 처음으로 1300원대에 진입해 두 달 가까이 1300원대에 머물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는 반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크게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엔화당 원화값의 경우 장중 100엔당 843.07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월 2일(840.27원) 이후 최저다. 김은지 기자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